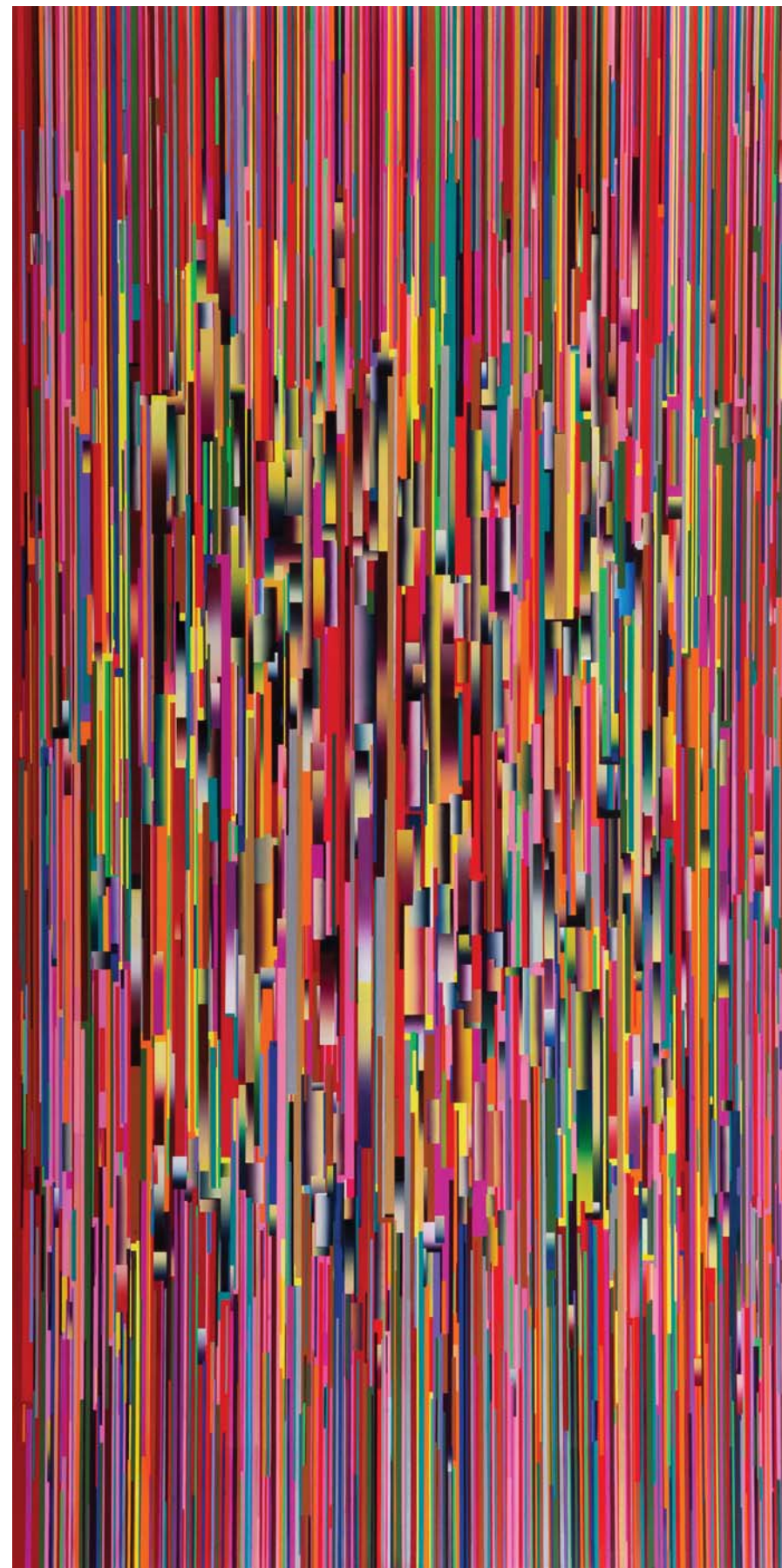


반딧불서 평화까지 ‘우제길의 빛·희망’



‘빛’ (2018)

ACC 지역작가 초청전 내일~내년 2월 24일 문화창조원

‘화면 가득한 빛의 향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탐구하고 지역 문화계와 협력하기 위해 지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첫 주자로 황영성 화백을 초청했던 ACC가 올해는 ‘빛의 화가’ 우제길 화백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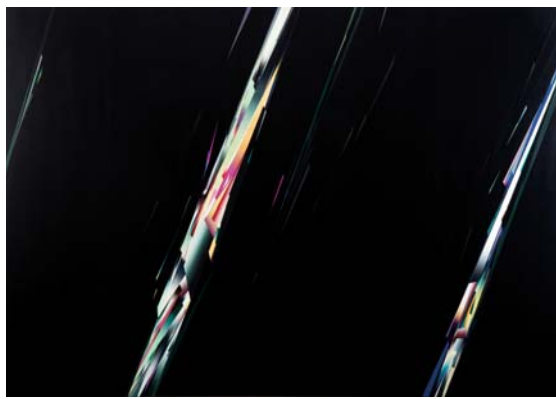
2018 지역작가 초청 ‘우제길의 빛’전이 12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열린다. 1967년 작품부터 근작까지 3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유년시절의 추억이 담긴 ‘반딧불’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빛’ 시리즈는 세월을 거치며 다양하게 변용돼 왔고, 이번 전시에서 그 변화의 순간순간을 만날 수 있다.

다채로운 신작이 내걸린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6m 대작 ‘빛’이다. 올해 초대전을 준비하며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던 작가에게 2018년 봄부터 일기 시작한 남북한의 화해 무드는 영감을 줬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북한 정상이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은 그에게 몽환한 감동을 줬고, 화려한 색감이 어우러진 다양한 ‘빛’ 작업으로 구현됐다.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종이 테이프를 수없이 찢아주는 화면에서는 평화를 갈망하는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듯 색과 빛이 쏟아져 나온다.

또 다른 신작은 2017년 터져 나왔던 촛불 함성의 재현처럼 보이며 검은 화면 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의 띠 역시 강렬한 인상을 준다. 화면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빛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

‘빛’을 주제로 한 그의 추상화 작업은 일관된 주제와 함께 다양한 변수가 특징이다. 모노톤의 화면에 색조를 붙여넣고, 이어 다양한 컬러들이 울동감을 이루며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형태 역시 화면에 길고 좁은 틈을 뚫어 빛을 표현하던 초기작부터 점탑형 구조 등으로 변화했으며 다채로운 컬러를 입힌 피자를 반죽해 사용해 만들어진



‘빛’ (2018)

화면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전한다.

“제 작업의 기본은 ‘빛’이죠. 그 빛을 찾아가는 과정은 힘들고 재미있었어요. 한지를 사용해서 빛을 찾아냈고, 산자락에 버려진 낡은 판넬 조각에 빛을 구현하기도 했죠.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 등 소리가 주는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인 빛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토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광주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번 전시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1955년 즈음, 전시회가 열리는 복합 2관 기트머리 어딘가에 살았습니다. 그 때는 장바구니로 보이는 게 밟히고 닭장이었죠. 그해는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 첫 밟을 내뒀었던 그 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를 갖게 돼 행복합니다. 인생의 종점에 다가온 시점에 전당에서 초대받은 것도 감명스럽구요.”

우 화백은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이달의 작가전’을 비롯 일본·독일·프랑스 등에서 96회 개인전을 진행했다.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 인기 작가상, 육과문화훈장(2004) 등을 받았다.

12일 오후 4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시회를 축하하는 합창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 오후 7시) 문의 1589-55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정기 작가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 우수상 김용안…신세계갤러리 17일까지 후보작 전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이정기 작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김용안 작가, 신진작가상은 박두리 작가가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신진작가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 초대전 개최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해 우리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회화와 조각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이정기(43) 작가는 장성 출신으로 전남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올해 심사위원 세 명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한 그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미래에 유물로 남는다’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김용안(42) 작가는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안개가 낀 푸른색 유화작품인 ‘Hidden’ 시리즈는 이 상황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회의를 표현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동양



이정기 작 ‘시대의 유물-어머니를 기록하는 방법’

화과 대학원을 졸업한 박두리 작가는 ‘소외된 감정’을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다.

수상자들의 작품을 포함해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 작가인 김지영, 김태형, 박소연, 윤준영, 이경하, 이설 등 자료 심사를 통해 선정된 9명 작가의 대표작은 1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각예술·음악·독립큐레이터의 결합

오버랩, 14일까지 ‘On : Off’ 전

시각예술, 음악, 독립큐레이터의 장르 밖 결합을 시도한 공동 창·제작한 작품이 전시중이다.

월산동에 위치한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은 오는 14일까지 미술작가, 싱어송라이터 밴드, 큐레이터(박유영)가 함께 기획과 공동 창·제작한 설치작품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On : Off’전을 진행한다.

주로 먹과 공예를 활용해 현대인의 상실과 좌절, 공허함을 표현하는 윤준영 작가는 신작 ‘어느 것도, 어떤 것도’를 통해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일굴, 별무리, 물결, 새가 담긴 드로잉을 중첩한 몽환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각각의 오브제를 활용한 영상이 어우러진다.

지역에서 10여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그룹 ‘우물안 개구리’ (라떼양, 봉봉, 소결)는 음악 내에서도 다양한 실험적 작곡과 활동을 추



윤준영 작 ‘어느 것도, 어떤 것도’

구하는 그룹으로 올해 2번째 음반을 출시할 예정이다. 어쿠스틱 사운드로 유쾌한 위로를 건네는 인디밴드 우물안 개구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곡으로 구현한다. 영상에 맞추어 흘러나오는 전시 타이틀곡 ‘나의 마지막 카니발’은 사랑, 젊음, 그들의 음악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http://overlab.creatorlink.net. 문의 062-351-2254. /김미은 기자 mekim@

애증관계 엄마와 엄마의 엄마

광주여성재단 14일 전시·토론 등 개최

‘모녀 관계’에 대한 담론이 펼쳐진다.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염미봉)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재단 내 8층 여성전시관과 강의실에서 전시 ‘상상(相相):허스토

리 오브 더 스페이스’와 연계된 라운드테이블 ‘엄마와 엄마의 엄마’를 진행한다. 이연숙 작가가 총괄 기획하고 임지형, 유현주, 강선형, 박형진, 박재순, 석미숙,

이지우, 송재영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머리리카락을 매개체로 삼아 깊은 애증으로 얽힌 모녀(母女) 관계를 다루고 있다. 미학자, 시각예술가, 무용가, 사운드 아티스트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통해 모녀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삶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엄마와 엄마의 엄마’를 주제로 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술평론가 유현주씨와 동화작가 임지형씨가 모녀관계에 대한 발제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참여작가들은 ‘엄마에 대한’ 혹은 ‘여성 가족 관계에 관한’ 관객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05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